# “80년 5월 이유 없이 스러져간 영령들 편히 쉬길…”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 동구 주남마을 위령비 일대서 열려
### 살풀이·풍선날리기 등으로 넋 위로
### 생존자 홍금숙씨 첫 참석 의미 더해

“80년 5월 이유 없이 스러져간 영령들이 이제는 편히 쉬길 바랍니다.”

12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주남마을 ‘위령비’ 앞에서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주민자치회의 주최·주관으로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가 열렸다.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는 1980년 5월23일 11공수여단이 광주-화순 간 15번 국도 위를 지나던 미니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해 18명 중 15명을 사살한 후 살아남은 3명 중 2명을 야산에 끌고가 총살한 ‘주남마을 양민 학살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매년 5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선거가 끝난 후인 이날 개최됐다.

‘기억이 니은이’는 과거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뜻인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역과 니은을 상징화해 이름 지어졌다.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와 광주 동구 지원2동 주민자치회는 12일 오전 10시 주남마을 위령비 앞에서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1980년 5월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풍선을 날리고 있는 모습.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주남마을 주민 등 50여명의 참석자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마을회관 앞에 모여 노란 풍선을 각자의 손에 쥐고 줄을 섰다.

맨 앞줄에 선 참석자들은 ‘인권이 숨쉬는 주남마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흰 천을 손에 들었다.

추모 행렬은 정광단 서구 양3동 동장이 문병란 시인의 시 ‘민주로에서’를 낭송한 후 출발했다.

운구 행렬을 연상케 한 이들이 마을 곳곳을 지나서 위령비 앞에 도착하자 ‘주남마을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 17명을 위로하는 살풀이춤 공연이 시작됐다.

공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쥐고 있던 노란 풍선을 위령비 주위에서 하늘로 날려보내며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후에도 참석자들은 위령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올해 행사에는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씨가 처음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행사에 오지 못했다는 홍씨는 전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난 후 겨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홍금숙씨는 “매번 행사마다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다. 주남마을 인근 도로만 지나도 숨이 막히는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홍씨는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이들의 시신이라도 찾아 넋을 달래주고 싶다”며 “위령비 인근이 과거 계엄군의 점령지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시나 구에서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홍씨의 발언 후 참석자들은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 형형색색의 물감을 이용해 민주·인권·평화의 글귀가 적힌 캔버스에 손도장을 찍었으며, 점심 식사 후엔 전통 놀이와 스탬프 투어 등 체험 활동을 했다. /장은정 기자

## “더블스타, 금타 화재 대책 無”

### 노조, 中 청도서 면담…무책임 지적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공장 화재 관련 ‘최대주주’ 더블스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사측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중국 청도에서 더블스타 경영진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공장 이전 및 신공장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더블스타는 칭다오투성그룹,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로 어떠한 대책과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광주공장 화재의 책임 있는 수습 방안 없이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더블스타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측은 “금호타이어는 국내 경영진의 ‘독립·책임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

## 광주 시내버스 노사 오늘 ‘사후조정’ 협상 테이블

### 전남지방노동위서…파업 후 첫 만남
### 노조 측 “요구안 수용되면 즉시 복귀”
### 회사 측 “과도한 요구” 접점 찾기 힘들듯

광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통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정 시도인 만큼,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광주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오룡동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만나 기본급 8.2% 인상, 정년 연장 등에 대해 재논의한다.

앞서 지난 4일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3차 조정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일 하루 전면 파업 후 6-8일 연휴기간 임시중단했다가 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재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사후조정제도를 통해 사측이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임금 인상폭과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측은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노사 모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 현직 경찰 새벽 노래방서 ‘만취 난동’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새벽 시간대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50대)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30분간 행패를 부리던 A 경위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성학 기자

## ‘보도방’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다 이권 다툼에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5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천여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거리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방 업주인 A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지역 내 다른 보도방 업주의 유입을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안재영 기자